

해양수산물과 행정사무감사 핫이슈

죽왕수협 저장시설·냉동냉장 저장창고 도마에

지난 12일 진행된 해양수산물에 대한 감사에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죽왕면수협 수산물저장시설과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 65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한 냉동냉장보관창고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죽왕면수협 수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는 먼저 함명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함의원은 “아야진에도 쇠빙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이 안된다고 한다”며 “죽왕면 수협에서는 대부분 활어위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저장시설이 필요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함형완 의원이 가세했다. 함의원

은 “죽왕수협 수산물저장시설은 어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3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며 “어민들도 왜 여기에다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쓸 일이 없으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냉동냉장 보관창고와 관련 함형완 의

원은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된다. 정말 애물단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함의원은 “물량이 적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러시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든 어디든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고, 해풍건조시설에 누가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지도 파악해야 한다”며 “준공 후에 운영비용도 엄청 들 것인데, 이런 여러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당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황상연 의원은 “반암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9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사항이 전혀 없다”며 “민간 유치보다는 관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상연 의원은 또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방류만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방류한 것이 미처 자라기도 전에 잡혀서 치수가 작은 것도 그대로 팔린

다고 하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다.

14일 진행된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 홍봉선 위원장은 “고성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수성문화제를 접경지역이라는 특색을 살려 많은 군인들이 참여하는 볼거리와 퍼포먼스 페스티벌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

라”고 했다.

김진 의원은 “22사단 신병교육대 면회가 보통 새벽에 왔다가 면회가 끝나면 바로 떠나고 있어 지역에 도움이 거의 안되고 있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외출이나 외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황상연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원사업의 전기 목책기는

사전에 농가에 보급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울무는 피해신고 후에 보급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함형완 의원은 “송지호 관광지 개발은 해변가 사구에 대한 보존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오토캠핑장, 오봉 왕곡마을, 인근 어촌체험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고 오봉 입구에 교차로를 개

설해 왕곡마을에 관광버스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매점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며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통나무집 10동에 대해서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송훈석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지난 11일 중단 3년째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3년째인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은 국민의 통일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3년 동안 중단됨에 따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성군을 비롯한 영북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고성군을 비롯한 영북지역의 경제를 되살리

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두고 남북간 대결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정상회담 등의 성과로 개시되었던 금강산 육로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간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의원은 “현 정부가 비정치적인 남북 교류협력분야인 금강산 관광 재개마저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남북한 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는 달리 지나칠 정도의 강경일변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해 온 현 정부하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의원은 “아울러 북한측에도 금강산 관광객 종기피격 사건은 물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성의있는 자세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3개 호수에 연꽃 시범식재

고성군이 화진포호 등 3개 호수의 수질 개선과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11일 연꽃 시범식재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연꽃 시범식재 사업은 고성군 야생화협회(회장 탁춘화)가 연꽃 무상기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화진포·광포호·봉포호에서 공무원과 고성군 야생화협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가시연·홍연·백연 등 총 15본을 식재했다. 고성군은 이번에 시범식재된 연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올해말까지 6개월간 계도 ... 내년 1월부터

고성군은 내년부터 간성읍과 거진읍 중심 시가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 홍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본격 단속에 앞서 앞으로 6개월간 간성읍과 거진읍 시가지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안하기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2인 1조로 된 계도반을 편성해 간성읍 및 거진읍 시가지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및 이동주차 등을 실시한다.

고성군 주정차 금지구역은 간성읍의 경우 고성고등학교 입구~간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거진읍의 경우 거진우체국 앞~고성수협 앞까지다.

군은 올해말까지 홍보활동을 벌인 뒤 내년 1월부터는 3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과 단속장비 11대를 동원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속내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알림

고성신문 하계 야유회 안내

고성신문 임직원 및 필진 야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진부령 정상에서 내리는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장신리 유원지'에서 더위를 식하며, 고성신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7월23일(토), 낮 12시~3시까지
- ◆장 소 : 간성읍 장신리 유원지
- ◆참석범위 : 임직원, 논설위원, 칼럼위원, 시민기자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